

# 연령과 체형에 따른 성인 남성의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조사

석해정<sup>†</sup> · 김인숙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 Survey on the Adult Males' Satisfaction Level with the Fit of Ready-made Suits by the Age and Body Type

Hye-Jung Seok<sup>†</sup> · In-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2006. 8. 24. 접수)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fit of ready-made suits(jackets and pants) among adult males and thereby to show its differences by the age group and body type. The respondents to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465 males, aged 20 through 59 year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 for the fit of each item ranged from 2.65 to 3.57, with the higher level found in jackets than in pants, and also in circumference parts than in length parts.

2.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fit by the age of adult males showed inter-group differences in the parts of jacket length, sleeve length, shoulder width, sleeve openings, and sleeve band width for jackets; and pant length for pants.

3.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fit by the body type of adult males indicated inter-group differences in chest circumference of jackets only.

4.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fit, with the exclusion of the age and body type relationship showed that adult males are affected more by the age than by the body type.

5. In the repair frequency by the item, pants(45.6%) showed a higher level than jackets(24.7%). The parts with a high repair level by the item were jacket length(8.4%) and sleeve length(19.8%) for jackets; and pant length(42.4%) and waist circumference(8.4%) for pants.

**Key words:** Satisfaction level with the fit, Ready-made suits, Age, Body type; 맞춤새 만족도, 기성복, 연령, 체형

### I. 연구목적

산업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 왔고, 의류 산업도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특히 남성복 시장은 1960년대 맞춤복으로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대기업의 시장 참

여로 기성복과 캐주얼 브랜드가 대두되어, 1996년에는 기성복 시장이 전체 남성복 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다. 2004년도 의류 소비 실태조사(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4)에 의하면 2004년 전체 의류 시장 중 남성복 시장 규모는 3조 6천억 원이며, 그 중 정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2.4%로 남성복 아이템 중 가장 높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캐주얼 차림의 “자유복 근무제”의 유행이 그 정점을 지나 이제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pinky90@hanmail.net

다시 정장 차림이 2002년 66.8%, 2003년 68.2%, 2004년 70.4%로 증가하고 있어 정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정장 입는 직장 남성은다”, 2004).

한편, 소비 생활의 개성화, 다양화는 소비 성향을 변화시켜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성 소비자들은 “매트로 섹슈얼”이라는 트렌드와 함께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기성복은 유행의 흐름이 점점 빨라짐에 따라 디자인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어 소비자들의 개인적 취향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의복의 맞춤새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 연령, 체형, 선호하는 패션 경향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맞춤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 제한을 받고 있다(석혜정, 김인숙, 2006).

또한 기성복 시장의 확대는 치수 규격을 남성의 다양한 신체 특성과 연령에 따른 체형 변화를 토대로 하기보다는 평균적인 남성을 대상으로 기성복을 제작하고 있어 맞춤새 적합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이선희, 서미아, 1997).

남성 정장은 체형을 잘 드러내는 특성 때문에 디자인, 색상, 스타일 등 다른 요소보다 맞춤새를 가장 중요시하는 아이템이라는 연구 결과(Hogge et al., 1987)와 우리나라 남성이 정장을 구입할 때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내구성, 칼라, 디자인 등의 요인 보다 맞춤새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삼성패션연구소, 2000)를 감안할 때 남성 정장의 의복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적절한 맞춤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성 기성복 맞춤새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선희, 서미아(1997)는 19~54세 남성을 대상으로 연령, 키, 체형별 각 아이템의 맞춤새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연령에 따라 재킷과 바지의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 김유미의 연구(1996)에서는 21~49세 남성을 대상으로 맞춤새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모든 아이템에서 대체적으로 ‘적당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나, 바지가 재킷에 비해 불만족이 높았고, 또한 연령에 따라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안성원(2001)은 20~59세 남성을 대상으로 맞춤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길이 항목이 둘레 항목에 비해 불만족이 컸고, 연령, 체형에 따라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특히 체형에 따른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가 뚜렷하여 체형이 맞춤새 만족도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맞춤새의 만족도는 연구자별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아이템에 따라 연령, 체형, 혹은 연령과 체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소비자들의 맞춤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맞춤새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의 기성복 정장(재킷, 바지)의 맞춤새 만족도를 조사하고 연령과 체형이 맞춤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인 남성 기성복 정장(재킷, 바지)의 각 부위별 맞춤새 만족도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성인 남성 정장의 맞춤새 만족도의 연령별 차이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성인 남성 정장의 맞춤새 만족도의 체형별 차이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4. 성인 남성 정장의 맞춤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체형의 관계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5. 성인 남성 정장의 수선 행동을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성인 남성의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령	빈도(명)	비율(%)	직업	빈도(명)	비율(%)
20-29세	149	32.04	생산직	15	3.23
30-39세	129	27.74	전문직	107	23.01
40-49세	98	21.08	판매직	23	4.95
50-59세	89	19.14	사무직	152	32.69
			학생	108	23.23
			기타	60	12.90
Total	465	100.00	Total	465	100.00

여 20세에서부터 59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5년 7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과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00부를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5부를 제외하고 465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측정 도구**

설문지는 맞춤새 만족도 14문항, 수선 여부 및 수선 부위 14문항, 신체 치수 2문항, 연령, 직업을 묻는 2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김유미, 1996; 석혜정, 김인숙, 2006; 손희순 외, 2000; 이경미, 최혜선, 1995)를 토대로 하였다.

맞음새 만족도 문항은 각 아이템의 부위별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 ‘잘 맞지 않는다’, 5점 ‘매우 잘 맞는다’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성복 정장 구매 후

수선 여부를 묻고 수선 부위와 수선 방향(줄인다/늘린다)을 표시하게 하였다.

설문에 제시된 각 아이템별 부위는 <표 2>와 같다. 각 아이템의 부위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고, 의복 구매시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를 선정하였다. 바지의 ‘밑위 길이’와 ‘대퇴둘레’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도식화로 나타내 주었다.

맞음새 만족도의 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0.92로 나타났다. 신체 치수를 묻는 문항은 키와 몸무게를 스스로 적게 하였다. 응답자의 신체 치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체형 분류는 신체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Rohrer지수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Rohrer지수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있는 키와 몸무게의 신체계측치를 사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술식 설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성민정, 김희은, 2001). Rohrer지수의 판정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박우미(1993), 백희영 외(2000), 성민정, 김희은(2001), 주재은 외(2001)가 제시한 판정 기준을 사용하여 Rohrer지수가 1.2 미만은 수척, 1.2 이상 1.5 미만은 정상, 1.5 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설문에 제시된 각 아이템별 부위

재킷(8부위)	바지(6부위)
재킷길이	바지길이
소매길이	허리둘레
어깨너비	영덩이둘레
가슴둘레	밑위길이
허리둘레	대퇴둘레
영덩이둘레	바지부리폭
소매통	
소매부리폭	

<표 3> 응답자의 신체 치수

신체 치수	평균	표준편차
키	173.83(cm)	5.25
몸무게	71.62(kg)	8.32
로러지수	1.36	0.15

**3. 자료의 분석**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인 남성의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춤새 만족도를 비례 척도로 간주해 평균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아이템의 맞춤새 만족도의 평균은 2.65에서 3.57의 범

<표 4>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춤새 만족도 평균 및 표준편차

아이템	부위	평균	표준편차	아이템	부위	평균	표준편차
재킷	재킷길이	3.57	0.85	바지	바지길이	2.65	1.13
	소매길이	3.22	1.02		허리둘레	3.34	0.84
	어깨너비	3.52	0.78		영덩이둘레	3.34	0.78
	가슴둘레	3.54	0.76		밑위길이	3.37	0.77
	허리둘레	3.48	0.77		대퇴둘레	3.36	0.78
	영덩이둘레	3.44	0.76		바지부리폭	3.39	0.76
	소매통	3.49	0.76				
	소매부리폭	3.50	0.73				

위에 분포하고 있다. 바지길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맞춤새 만족도를 보였다.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춤새 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재킷길이(3.57), 가슴둘레(3.54), 어깨너비(3.52), 소매부리폭(3.50)이었고, 비교적 맞춤새 만족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낮은 부위는 바지길이(2.65), 소매길이(3.22), 바지의 허리둘레(3.34), 바지의 엉덩이둘레(3.34)로 나타났다. 재킷이 바지에 비해 맞춤새 만족도가 높았고, 둘레부위가 길이 부위에 비해 맞춤새 만족도가 높아 바지와 길이 부위에 대한 맞춤새 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안성원의 연구(2001)에서는 ‘적당하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부위는 재킷의 가슴둘레, 대퇴둘레, 밑위길이, 바지부리폭 등이었고, 비율이 낮은 부위는 소매길이, 바지길이, 바지의 허리둘레, 바지의 엉덩이둘레 등이었다. 김유미의 연구(1996)에서는 ‘적당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위는 재킷의 앞폭, 뒤폭, 소매통, 재킷길이 등이었고, 비율이 낮은 부위는 소매길이, 바지길이, 바지의 허리둘레, 바지의 엉덩이둘레로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 맞춤새 만족도가 낮은 부위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른 부위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바지 아이템이 안성원의 연구(2001)에서는 재킷에 비해 높은 맞춤새 만족도를 보

여 차이가 나타났다.

## 2. 연령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표 5). 재킷길이, 소매길이, 어깨너비, 소매통, 소매부리폭, 바지길이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재킷을 부위별로 살펴보면 재킷길이, 소매길이, 소매통, 소매부리폭은 30대가, 어깨너비는 30대와 40대가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재킷길이는 20대와 50대가 같은 맞춤새 만족도를 보였고,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소매길이는 40대와 50대가 같은 맞춤새 만족도를 보였고,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어깨너비는 50대가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소매통은 30대와 20대, 40대, 50대 사이에 차이를 보였고, 20, 40, 50대의 맞춤새 만족도는 30대에 비해 낮았다. 소매부리폭은 20대와 40대가 같은 맞춤새 만족도를 보였고, 30대, 20대와 40대, 50대 순으로 맞춤새 만족도가 높았다.

정리해 보면 재킷의 맞춤새 만족도는 모든 부위에서 30대가 가장 높았고, 이에 비해 50대가 가장 낮았다. 20대와 40대는 부위에 따라 30대 혹은 50대와 같

<표 5>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아이템	부위	연령대				F-value
		20대 (149명)	30대 (129명)	40대 (98명)	50대 (89명)	
재킷	재킷길이	3.52 B	3.77 A	3.58 AB	3.36 B	4.43**
	소매길이	3.27 AB	3.40 A	3.05 B	3.04 B	3.18*
	어깨너비	3.50 AB	3.69 A	3.54 A	3.31 B	4.22**
	가슴둘레	3.52	3.62	3.56	3.40	1.46
	허리둘레	3.48	3.60	3.46	3.36	1.74
	엉덩이둘레	3.46	3.53	3.45	3.26	2.43
	소매통	3.46 B	3.68 A	3.43 B	3.31 B	4.75**
	소매부리폭	3.51 B	3.74 A	3.41 B	3.26 C	8.81***
바지	바지길이	2.87 A	2.75 A	2.39 B	2.43 B	5.24**
	허리둘레	3.34	3.43	3.29	3.28	0.74
	엉덩이둘레	3.32	3.43	3.37	3.24	1.14
	밑위길이	3.38	3.46	3.40	3.19	2.22
	대퇴둘레	3.34	3.43	3.39	3.24	1.21
	바지부리폭	3.35	3.50	3.40	3.29	1.62

\* $p \leq .05$ , \*\* $p \leq .01$ , \*\*\* $p \leq .001$ , A>B>C: Duncan-test,  $p \leq .05$  수준

은 맞춤새 만족도를 보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맞춤새 만족도를 보이거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맞춤새 만족도가 나타난 것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장을 착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고, 아직 체형의 변화가 크지 않아 업체에서 30대를 기준으로 기성복 정장의 치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에게 잘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20대와 40, 50대는 30대에 비해 그들의 체형이나 맞춤새 선호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맞춤새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장 착용률이 적고 캐주얼 차림을 많이 하여 캐주얼 스타일이 더욱 익숙한데, 캐주얼에 비해 여유가 많은 정장의 경우 맞춤새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는 유행에 민감한데 현재 몸에 꼭 맞는 여유가 적은 스타일이 유행이라는 점과 선행연구 결과(석혜정, 김인숙, 2006) 맞춤새 선호 경향이 높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몸에 꼭 맞는 여유가 적은 스타일을 선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대에 있어서 정장의 넉넉한 여유분은 맞춤새 만족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비해 40, 50대는 중년을 넘어서면서 체형의 변화로 비만의 경우가 많고 맞춤새 선호도가 낮아 여유분이 많은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석혜정, 김인숙, 2006)를 고려할 때 기존의 기성복 정장은 여유가 적어 이와 같

이 맞춤새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맞춤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연령대의 특징을 감안하여 그들의 선호도에 맞는 여유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선희, 서미아의 연구(1997)에서 재킷의 맞춤새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4항목 중 전체길이, 어깨너비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고, 19~27세의 집단이 28세 이상인 집단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위에 따라 낮은 맞춤새 만족도를 보인 결과와 같았다.

바지는 바지길이 부위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있었고,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가 같은 만족도를 보였고, 20, 30대가 40, 50대에 비해 맞춤새 만족도가 높았다.

이선희, 서미아의 연구(1997)에서 바지의 맞춤새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바지의 모든 부위(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 밑위길이, 바지통)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모든 항목에서 36~43세 집단의 맞춤새 적합도가 가장 높았고, 19~27세 집단의 맞춤새 적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3. 체형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체형별 맞춤새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표 6).

<표 6> 체형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아이템 부위	체 형	수 칙 (57명)	정 상 (326명)	비 만 (82명)	F-value
재킷	재킷길이	3.47	3.61	3.50	0.97
	소매길이	3.32	3.23	3.07	1.12
	어깨너비	3.51	3.55	3.44	0.66
	가슴둘레	3.61 A	3.57 A	3.33 B	3.75*
	허리둘레	3.53	3.52	3.33	2.01
	엉덩이둘레	3.46	3.48	3.28	2.20
	소매통	3.56	3.49	3.41	0.66
	소매부리폭	3.63	3.52	3.35	2.73
바지	바지길이	2.88	2.66	2.44	2.63
	허리둘레	3.16	3.40	3.23	2.83
	엉덩이둘레	3.33	3.36	3.29	0.22
	밑위길이	3.32	3.41	3.26	1.43
	대퇴둘레	3.33	3.40	3.22	1.72
	바지부리폭	3.35	3.43	3.27	1.58

\* $p \leq .05$ , A>B: Duncan-test,  $p \leq .05$  수준

재킷의 가슴둘레 부위만 집단간 차이가 있으며, 수척형과 정상형이 비만형에 비해 맞춤새 만족도가 높았다.

이선희, 서미아의 연구(1997)에서 바지의 맞춤새를 체형별로 살펴본 결과 5부위(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 밑위길이, 바지통) 중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고, 표준형과 비만형이 마른형에 비해 의복 적합도가 높았다. 재킷은 4부위(전체길이, 어깨너비, 소매길이, 소매통) 모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안성원의 연구(2001)에서는 재킷과 바지에서 재킷길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재킷의 전체 맞춤새, 가슴둘레, 목둘레, 위팔둘레, 소매길이,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선위치, 진동둘레, 바지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밑위길이, 바지길이, 바지통)에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4. 연령 및 체형의 관계

1) 연령별 체형 분포

연령과 체형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의 값이 59.74로 서로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모든 연령대에서 정상형의 분포가 가장 많았지만 (20대 67.79%, 30대 78.29%, 40대 69.39%, 50대 62.92%), 20대는 수척형(25.50%), 40대(25.51%)와 50대(32.58%)는 비만형의 비율이 높아 각 연령대별 특징을 보이는 체형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 맞춤새 만족도가 연령과 체형의 연관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기 때문

에 체형 혹은 연령만이 맞춤새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을 통제된 상태에서 맞춤새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각 연령 혹은 체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체형과 연령에 따라 맞춤새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 각 연령대의 체형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각 연령대의 체형별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 t-test를 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체형별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가 없어, 체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3) 각 체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1) 수척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수척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t-test를 실시하였으나 모든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0대와 50대는 수척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수척형의 남성은 연령별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가 없어 연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2)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한 결과를 <표 8>에 나타냈다. 재킷길이, 어깨너비, 소매통, 소매부리폭, 바지길이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재킷길이, 어깨너비, 소매통, 소매부리폭 모두 30대가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재킷길이와 어깨

<표 7> 연령과 체형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 \ 체형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total	$\chi^2=59.74***$
20대	38 25.50	101 67.79	10 6.71	149 100.00	
30대	10 7.75	101 78.29	18 13.95	129 100.00	
40대	5 5.10	68 69.39	25 25.51	98 100.00	
50대	4 4.49	56 62.92	29 32.58	89 100.00	
total	57 12.26	326 70.11	82 17.63	465 100.00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 각 연령대별 백분율, \*\*\* $p \leq .001$

&lt;표 8&gt; 정상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아이템	부위	연령대	20대 (101명)	30대 (101명)	40대 (68명)	50대 (56명)	F-value
재킷	재킷길이		3.58 AB	3.78 A	3.54 AB	3.41 B	2.75*
	어깨너비		3.48 AB	3.71 A	3.54 AB	3.39 B	2.73*
	소매통		3.44 B	3.71 A	3.38 B	3.34 B	4.71**
	소매부리폭		3.50 B	3.75 A	3.38 B	3.30 B	6.41***
바지	바지길이		2.89 A	2.69 AB	2.57AB	2.35 B	3.36*

\* $p \leq .05$ , \*\* $p \leq .01$ , \*\*\* $p \leq .001$ , A>B>C: Duncan-test,  $p \leq .05$  수준

&lt;표 9&gt; 비만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아이템	부위	연령대	20대 (10명)	30대 (18명)	40대 (25명)	50대 (29명)	F-value
재킷	소매길이		3.30 AB	3.61 A	2.96 AB	2.76 B	3.19*
	소매부리폭		3.50 AB	3.67 A	3.36 AB	3.10 B	3.41*
바지	대퇴둘레		2.70 C	3.67 A	3.24 AB	3.10 BC	4.93**
	바지부리폭		3.14 AB	3.67 A	3.28 AB	2.90 B	2.82*

\* $p \leq .05$ , \*\* $p \leq .01$ , A>B>C: Duncan-test,  $p \leq .05$  수준

너비는 50대가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소매통과 소매부리폭은 20대, 40대, 50대가 30대에 비해 맞춤새 만족도가 낮았다. 바지길이는 20대가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50대가 가장 낮았다.

### (3) 비만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 차이

비만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한 결과를 <표 9>에 나타냈다. 소매길이, 소매부리폭, 대퇴둘레, 바지부리폭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소매길이와 소매부리폭, 바지부리폭은 30대가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50대가 가장 낮았고, 대퇴둘레는 30대가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20대가 가장 낮았다.

각 체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상형과 비만형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나 각 체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상형과 비만형 모두 대부분의 부위에서 30대의 맞춤새 만족도는 가장 높았고, 50대의 맞춤새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맞음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안성원(2001)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홍숙, 정삼호(1990)의 연구 모두 체형별 맞춤새 만족도는 대부분의 부위에서 유의성이 나타난 반면 연령별 맞춤새 만족도는 아이템의 부위에 따라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어, 체형이 연령보

다 맞춤새 만족도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어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 5. 성인 남성의 기성복 수선율

기성복 정장을 구매했을 때 수선 부위와 수선 방법을 조사하였다(표 10).

아이템별 수선 빈도는 재킷은 24.7%, 바지는 45.6%로 바지가 재킷에 비해 수선율이 높았다. 강여선의 연구(2004)에서는 재킷의 평균 수선 비율이 42%로 나타났다.

각 아이템의 부위별 수선율이 높은 부위는 재킷길이(8.4%), 소매길이(19.8%), 바지길이(42.4%), 바지의 허리둘레(8.4%)였다. 바지의 허리둘레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부위는 길이 부위로 길이부위가 둘레부위에 비해 수선율이 높았다.

이선희, 서미아의 연구(1997)에서는 수선율이 높은 부위는 재킷의 소매길이, 어깨, 상의길이, 바지(바지길이 제외)의 허리둘레, 바지통으로 나타났고, 강여선의 연구(2004)에서는 재킷의 수선 비율이 높은 부위는 소매길이, 재킷길이, 허리둘레로 본 연구에서는 낮은 수선율을 보인 어깨너비, 재킷의 허리둘레, 바지부리폭이 높은 수선율을 보여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수선을 할 때 모든 부위에서 줄이는 경우가 늘리는 경우보다 많았다. 줄이는 경우가 늘리는 경우보다 월

&lt;표 10&gt; 각 아이템의 부위별 수선율과 수선 경향

(단위: 명(%))

아이템별 부위	수선 내용	수선율	줄임	늘림
재킷	재킷길이	39( 8.4)	30( 6.5)	9(1.9)
	소매길이	92(19.8)	61(13.1)	31(6.7)
	어깨너비	20( 4.3)	12( 2.6)	8(1.7)
	가슴둘레	20( 4.3)	12( 2.6)	8(1.7)
	허리둘레	23( 4.9)	14( 3.0)	9(1.9)
	영덩이둘레	15( 3.2)	10( 2.2)	5(1.1)
	소매통	19( 4.1)	11( 2.4)	8(1.7)
바지	소매부리폭	15( 3.2)	12( 2.6)	3(0.6)
	바지길이	197(42.4)	184(39.6)	13(2.8)
	허리둘레	39( 8.4)	25( 5.4)	14(3.0)
	영덩이둘레	23( 4.9)	17( 3.7)	6(1.3)
	밑위길이	21( 4.5)	18( 3.9)	3(0.6)
	대퇴둘레	18( 3.9)	12( 2.6)	6(1.3)
바지부리폭	22( 4.7)	18( 3.9)	4(0.9)	

&lt;표 11&gt; 각 연령대의 부위별 수선 방법의 교차분석 결과

아이템	부위	수선 방법	20대	30대	40대	50대	Total	$\chi^2$ -value
재킷	소매길이	줄임	13(16.6)	10(15.3)	15.0(12.6)	23(16.6)	61	16.40**
		늘림	12( 8.4)	13( 7.8)	4.0( 6.4)	2( 8.4)	31	
		Total	25	23	19.0	25	92	

셀 안의 숫자는 실제빈도(기대빈도임), \*\* $p \leq .01$

등히 많은 부위는 재킷의 재킷길이, 소매길이, 재킷의 영덩이둘레, 소매부리폭, 바지길이, 바지의 허리둘레, 바지의 영덩이둘레, 밑위길이, 대퇴둘레, 바지부리폭이었다. 강여선의 연구(2004)에서도 재킷의 모든 부위에서 줄이는 경우가 늘리는 경우보다 많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재킷은 길이 부위가 다른 둘레 부위에 비해 수선율이 월등히 높은 점과 특히 맞춤새 만족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높았던 재킷길이의 수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들 재킷 치수를 선택할 때 길이 항목보다는 둘레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길이의 경우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같은 둘레항목 치수에서도 다양한 길이항목의 치수를 가진 재킷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년으로 갈수록 비만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로 길이는 청년층에 비해 짧지만, 둘레는 굵어져 이와 같은 체형을 고려한 재킷이 필요하다.

바지는 허리둘레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수선율

이 높아 이에 대한 치수 변환이 필요하다.

각 아이템의 부위별 연령, 체형에 따라 수선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chi^2$ 값의 유의 수준이 0.05 이하인 부위만 <표 11>, <표 12>에 제시하였다.

연령별로는 소매길이 부위만 유의하였다. 20대와 30대는 줄이는 경우에 비해 늘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40대와 50대는 늘리는 경우보다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50대는 소매길이는 줄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 50대를 타깃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소매길이의 치수 조정이 필요하다.

체형별로는 소매길이, 어깨너비, 가슴둘레, 재킷의 허리둘레, 재킷의 영덩이둘레, 소매통, 바지의 허리둘레, 대퇴둘레 부위에서 유의하였다. 소매길이는 수척형과 정상형은 줄이는 경우보다 늘리는 경우가 많고, 비만형은 늘리기보다 줄이는 경우가 많고, 그 외 어깨너비, 가슴둘레, 재킷의 허리둘레, 재킷의 영덩이둘레, 소매통, 바지의 허리둘레, 대퇴둘레 부위는 수척형과



&lt;표 12&gt; 각 체형의 부위별 수선 방법의 교차분석 결과

아이템	부위	수선 방법	수척	정상	비만	total	$\chi^2$ -value
재킷	소매길이	줄임	6(6.6)	33(38.5)	22(15.9)	61	9.39**
		늘림	4(3.4)	25(19.5)	2( 8.1)	31	
		Total	10	58	24	92	
	어깨너비	줄임	3(3.6)	8( 4.8)	1( 3.6)	12	10.28**
		늘림	3(2.4)	0( 3.2)	5( 2.4)	8	
		Total	6	8	6	20	
	가슴둘레	줄임	5(3.0)	7( 4.8)	0( 4.2)	12	16.35***
		늘림	0(2.0)	1( 3.2)	7( 2.8)	8	
		Total	5	8	7	20	
	허리둘레	줄임	6(4.3)	8( 5.5)	0( 4.3)	14	15.67***
		늘림	1(2.7)	1( 3.5)	7( 2.7)	9	
		Total	7	9	7	23	
	엉덩이둘레	줄임	5(3.3)	5( 4.7)	0( 2.0)	10	8.57*
		늘림	0(1.7)	2( 2.3)	3( 1.0)	5	
		Total	5	7	3	15	
	소매통	줄임	5(4.1)	6( 4.6)	0( 2.3)	11	6.99*
		늘림	2(2.9)	2( 3.4)	4( 1.7)	8	
		Total	7	8	4	19	
바지	허리둘레	줄임	9(5.8)	14(10.9)	2( 8.3)	25	20.91***
		늘림	0(3.2)	3( 6.1)	11( 4.7)	14	
		Total	9	17	13	39	
	대퇴둘레	줄임	5(4.0)	7( 6.0)	0( 2.0)	12	7.25*
		늘림	1(2.0)	2( 3.0)	3( 1.0)	6	
		Total	6	9	3	18	

셀 안의 숫자는 실제빈도(기대빈도임), \* $p \leq .05$ , \*\* $p \leq .01$ , \*\*\* $p \leq .001$

정상형은 늘리는 경우보다 줄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만형은 줄이는 경우보다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기성복 정장(재킷, 바지)의 맞춤새 만족도를 조사하고 연령대별, 체형별 각각의 맞춤새 만족도의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각 아이템의 맞춤새 만족도의 평균은 2.65에서 3.57의 범위에 분포하였고, 각 아이템의 부위별 맞춤새 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재킷길이(3.57), 가슴둘레(3.54), 어깨너비(3.52), 소매부리폭(3.50)이었고, 비교적 맞춤새 만족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낮은 부위는 바지길이(2.65), 소매길이(3.22), 바지의 허리둘레(3.34),

바지의 엉덩이둘레(3.34)로 나타났다. 재킷이 바지에 비해 맞춤새 만족도가 높았고, 둘레부위가 길이 부위에 비해 맞춤새 만족도가 높았다.

2. 성인 남성의 연령에 따른 맞춤새 만족도는 재킷 길이, 소매길이, 어깨너비, 소매통, 소매부리폭, 바지 길이 부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맞춤새 만족도는 모든 부위에서 30대가 가장 높았고, 이에 비해 50대가 가장 낮았다. 20대와 40대는 부위에 따라 30대 혹은 50대와 같은 맞춤새 만족도가 나타나, 부위에 따라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맞춤새 만족도를 보이거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3. 성인 남성의 체형에 따른 맞춤새 만족도는 재킷의 가슴둘레 부위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4. 체형 혹은 연령만이 맞춤새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을 통제할 상

태에서 맞춤새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각 연령 혹은 체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체형과 연령에 따라 맞춤새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연령대를 통제하면 체형 간 맞춤새 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형을 통제하면 연령별 맞춤새 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과 체형이 맞춤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성인 남성은 체형보다는 연령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상형, 비만형 모두 30대의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높고, 50대 맞춤새 만족도가 가장 낮아 각 체형의 연령대별 맞춤새 만족도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5. 아이템별 수선 빈도는 재킷은 24.7%, 바지는 45.6%로 바지가 재킷에 비해 수선율이 높았다. 각 아이템의 부위별 수선율이 높은 부위는 재킷길이(8.4%), 소매길이(19.8%), 바지길이(42.4%), 바지의 허리둘레(8.4%)였다. 연령대별로는 재킷의 소매길이 부위만 유의하였다. 체형별로는 소매길이, 어깨너비, 가슴둘레, 재킷의 허리둘레, 재킷의 엉덩이둘레, 소매통, 바지의 허리둘레, 대퇴둘레 부위에서 유의하였다. 재킷의 소매길이는 수척형과 정상형은 줄이는 경우보다 늘리는 경우가 많았고, 비만형은 늘리는 경우보다 줄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 재킷의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통, 바지의 허리둘레, 대퇴둘레 부위는 수척형과 정상형은 늘리는 경우보다 줄이는 경우가 많았고, 비만형은 줄이는 경우보다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길이항목에 비해 둘레항목의 맞춤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바지에 비해 재킷의 맞춤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길이항목과 바지의 치수 변환을 통해 맞춤새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재킷 치수를 선택할 때 길이항목보다는 둘레항목을 기준으로 삼고 길이 부위가 다른 둘레 부위에 비해 수선율이 월등히 높고, 특히 길이의 경우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같은 둘레항목 치수에서도 다양한 길이항목의 치수의 재킷이 필요하다. 특히 중년으로 갈수록 체형의 변화로 길이는 청년층에 비해 짧지만, 둘레는 굵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연령대에 적합한 치수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바지는 허리둘레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수선율이 높아 이에 대한 치수 변환과 함께 치수뿐만 아니라 체형의 형태를 고려한 각 부위에 새로운 바지 치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복 업체에서는 목표 시장의 소비자에게 맞춤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체형, 선호하는 맞춤새 등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스타일이나 실루엣을 제공하는 의류 제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맞춤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체형보다는 연령임을 감안할 때 타깃 연령대를 확실히 잡고 이에 맞는 맞춤새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모든 업체에서 30대만을 기준 타깃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업체의 특징에 따라 청년층 혹은 중장년층,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를 타깃으로 하여 그들에게 맞는 치수 전개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여유분을 제시한다면 맞춤새 만족도를 높여 주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소재, 패턴, 디자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문 내용 중 맞춤새 만족도를 5단계의 주관적 감각에 의한 응답이라는 점과 신체 치수를 연구자가 측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게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강여선. (2004). *남성복 재킷의 선호 여유량과 맞춤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유미. (1996). *신사복 정장의 치수 규격과 맞춤새에 대한 소비자 태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백희영, 남윤자, 박계경, 김주연. (2000). *신체에 대한 인식과 계측 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59-70.

석해정, 김인숙. (2006). *연령과 체형에 따른 성인 남성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 선호도*. *대한가정학회지*, 44(7), 13-21.

성민정, 김희은. (2001). *비만 판정 지수에 의한 여대행의 체형 분류 및 체형 인지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3), 227-234.

소비자 의복 구입 결정 요인. (2000, 12. 28). *삼성패션연구소 자료검색일 2006. 6. 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손희순, 임순, 김효숙, 손희정, 김영숙, 장희경, 박호선. (2000).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맞춤새 선호도 및 의복행동 비교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1), 59-72.

안성원. (2001). *성인 남성의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의류 소비 실태조사. (200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검색일 2006, 6. 7, 자료출처 <http://www.kotra.or.kr>
- 이경미, 최혜선. (1995). 중년 여성 기성복의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87-201.
- 이선희, 서미아. (1997). 남성 기성복의 적합성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생활과학연구*, 15, 155-176.
- 정장 입을 직장 남성는다. (2004, 12. 6).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06, 6. 7,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정홍숙, 정삼호. (1990). 성인 여성의 기성복사이즈 만족도와 체형 및 연령과의 관계. *가정문화연구*, 4, 75-91.
- 주재은, 정찬진, 정명선. (2001). 중년 여성의 신체지각과 이상적 연령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복식문화연구*, 9(5), 723-733.
- Hogge, V. E., Baer, M., & Kamg-Park, J. (1987). Clothing for elderly and non-elderly men: A comparison of preference, perceived availability and fitting problem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4), 47-53.